

POINT

독도의 핵심 포인트



동국문헌비고 『동국문헌비고』여지도

국왕 영조의 명에 의해 조선의 문물제도를
기록한 관찬서입니다.

이 책에는 “우산도(독도)와 울릉도...
두 섬으로 하나가 바로 우산이다...
『여지지』에 이르기를,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인데, 우산은 일본이
말하는 송도(松島)다.”라고 하였습니다.

POINT 독도의 핵심 포인트



「태정관(太政官)지령」

1877년 3월 일본 최고 행정기구인
태정관이 내무성에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니라고 내린 지령입니다.

태정관은 17세기 에도 막부와 조선
정부 간 교섭(울릉도쟁계) 결과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소속이 아님이 확인되었다고
판단하고, “다케시마(울릉도) 외
일도(一嶋, 독도)의 건에 대해
본방(本邦, 일본)과는 관계가 없음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시를 내무성에

POINT

독도의 핵심 포인트



일 외무성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1870년 외무성 관리인 사다 하쿠보(佐田白茅)
등이 조선을 시찰한 후 외무성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조선 부속이 된 사정”이
언급되어 있어, 당시 일본 외무성이
두 섬을 조선 영토로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POINT 독도의 핵심 포인트



칙령(勅令) 제41호 반포

고종 황제는 칙령으로 ‘울릉도(鬱陵島)를
울도(鬱島)로 개칭(改稱)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정(改正)한
건(件)’을 제정 반포했습니다.

이 칙령 제2조에 울도군(鬱島郡)의 관할
구역으로 울릉전도(鬱陵全島),
죽도(竹島)와 함께 석도(石島, 독도)를
규정하여 독도가 울도군의 관할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POINT 독도의 핵심 포인트



시마네현고시(島根縣告示) 제40호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을 알리는 지방
고시입니다.

일본은 1904년 이래 만주와 한반도에 대한
이권을 두고 러시아와 전쟁 과정에서
동해에서의 해전을 위한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1905년 독도를 무주지라 주장하면서
영토편입을 시도하고 시마네현에
고시했습니다.

그러나 시마네현고시 제40호는
일본의 우리나라 국권에 대한 단계적 침탈
과정의 일환이었으며, 우리나라가 오랜
기간에 걸쳐 확고히 확립하여 온
독도 영유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이므로
국제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POINT 독도의 핵심 포인트



3월. 울도군수 심흥택 보고서

울도군수 심흥택이 울릉도를 방문한 일본
시마네현 관민 조사단으로부터 일본이
독도를 영토 편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 날 강원도 관찰사와
내부(內部, 현재의 행정안전부에 해당)에
보고한 문서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본군 소속 독도”라고 하여
독도가 울도군의 관할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5월. 의정부 참정대신
지령 제3호

대한제국 최고의 행정기구인 의정부에서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을 부인하는 지령을
내린 것입니다.

의정부는 강원도 관찰사로부터 일본이
독도를 영토 편입했다는 보고를 접하고,
일본의 독도 편입을 부인하는
참정대신(지금의 부총리격)의 지령을
내립니다.

POINT

독도의 핵심 포인트



1월 29일.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일본의 통치 행정
범위에서 독도를 제외시킨 각서입니다.

연합국 최고사령관은 일본의 영역에서
“울릉도, 리앙쿠르암(독도)과 제주도는
제외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6월 22일.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1033호
연합국 최고사령관이 SCAPIN 제677호에
이어 일본의 선박 및 국민이 독도 또는
독도 주변 12해리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한 각서입니다.

POINT 독도의 핵심 포인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을 종결하면서 연합국과 일본이 체결한 조약입니다.

이 조약 제2조(a)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3천여 개의 도서 가운데 예시에 불과하며, 독도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독도가 한국의 영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독도의 생물

1. 강치

좁게는 캘리포니아강치와 독도강치, 갈라파고스강치가 여기에 속한다. 독도강치는 독도를 비롯한 동해 연안에 서식했으나 일제강점기 바다사자의 가죽을 얻으려는 일본 어부들의 무분별한 남획으로 그 수가 급격히 줄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절멸한 것으로 본다. 독도에서는 1972년까지 확인되었으며, 1975년 이후 멸종된 것으로 추정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강치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독도의 생물

2. 돌돔

돌발, 즉 바다 밑 해초가 무성한 암초지대에서 살기 때문에 돌돔이라고 불린다. 충남에서는 청돔, 부산에서는 줄돔, 제주도에서는 물돛, 갯돔, 울릉도에서는 벤찌라고 부르며, 어린 돌돔은 경남에서 아홉동가리라고 불린다.